지혜는 지식, 경험, 사색 집합체



新 불교사자성어

㊳ 일사일지(一事一智)

일사일지(一事一智)는 '한 가지 일을 통해서 한 가지 지혜를 얻는다' 는 뜻이다. 일사일지(一事一智)는 '간시궐(乾屎橛, 마른 똥막대기)' 이라는 화두로 유명한 운문선사의 말씀이다. 그의 법문집인 〈운문광록(雲門廣錄)〉에 나오는 '인일사 장일지(因一事 長一智)' 에서 줄인 말인데, 운문선사 외에도 많은 선승들이 즐겨 사용했다. 또 〈명심보감〉 등 일반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자성어다.

〈명심보감〉 성심편에는 "불경일사(不經一事)면 부장일지(不長一智)"라고 하여, '한 가지 일을 겪지 않으면 하나의 지혜가 생기지 않는다' 고 하였는데, 실제로 우리는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간에 그 일을 계기로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 그것이 경험을 통한 지혜인데, 그 지혜가 축적되고 축적되어 삶의 원천이 된다.

우리는 많은 일과 사건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 가운데는 의미 있는 경험도 있고 별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경험도 있다. 또 매일 같이 반복되는 일상적인 경험도 있고 난생 처음 겪는 특별한 경험도 있다. 처음 겪는 일에서 보다 많은 경험과 지혜를 배우게 되지만, 그 어떤 것이든 우리는 하나의 일을 겪을 때마다 적어도 하나 또는 여러 가지 경험과 지혜를 얻게 되고, 이렇게 축적된 여러 가지 경험과 지혜는 우리의 삶과 인생에 중요한 밑바탕이 된다.

지혜에는 지식을 통한 지혜가 있고 경험을 통한 지혜가 있다. 지식을 통한 지혜는 고전 등 책을 통하여, 또는 학교에서 배운 지혜로서, 이는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선인(先人)들의 삶과 경험이 축적된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혜는 선인들로부터 전수한 지혜가 대부분이다.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전통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개인의 경험을 통한 지혜가 있다. 기존의 지식이나 전통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발전시킨 지혜, 또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로서, 이 역시 삶에 중요한 바탕, 모티브가 된다. 때론 개인의 체험과 경험, 지혜가 바탕이 되어 새로운 것을 창조, 발명하기도 한다.

지혜는 지식, 경험, 사색의 집합체이다. 지혜는 지식의 습득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식과 경험, 사색이 합해져야 한다. 학식이 전혀 없어도 의(義)와 불의, 옳고 그름 등 사리(事理)를 두부 자르듯이 잘 분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서양의 고전을 줄줄 외울 정도로 박학다식해도 명예와 물욕에 어둡고, 인간사에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학문을 해도 '학이시습(學而時習)' 이 안 된 사람으로 지식과 실천이 동행하지 않아서 그렇다. 고전적인 언어로는 '서자서 아자아(書自書 我自我, 글은 글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 노는 인생)' 라고 하는데, 백과사전처럼 박학다식해도 단순 지식에 불과하고, 성찰과 사고력, 실천과 탐구정신 결핍으로 지혜를 창출해 내지 못한다. 사색과 학이시습을 하지 않으면 천재라도 백치가 된다. 그런 사람은 사전적인 역할은 해도 삶과 인생의 멘토가 되지는 못한다.

반면 배운 것은 별로 없어도 매우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의지가 굳고 바르고 부지런하다. 이들의 지혜는 자신이 겪은 일, 지식과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난관이 닥쳤을 때 슬기롭게 극복하는 힘이 있다.

장주환 선생은 "지혜는 편견과 고정관념으로부터 탈출을 의미하며, 무지로부터 탈출하는 것이며,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의 가치를 아는 것이며,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이며, 성숙된 인성을 의미하며, 삶의 모든 상황에 대한 예상능력, 분석능력, 처리능력, 분별력, 판단력을 말하며, 또 지혜를 낳는다."고 하였다.

선승들은 뛰어난 지혜의 소유자들이다. 그들은 참선수행에서 터득한 하나하나의 사례, 즉 일사일지(一事一智)를 모아서 집대성시켰는데, 그 책이 유명한 〈벽암록〉이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설두가 노파 간파한 도리는?



격절록 강설

㊳ 조주투순 2

[評唱 2]

時時有生機處. 便要垂手 問這婆子 婆子既知是趙州. 且道 覿面為什麼却道偷趙州笋去. 州云 "忽遇趙州時如何" 婆子便掌 也是這老漢惹得婆子與他手脚 他便休去. 且道 趙州是箇 什麼道理.

(조주에게는) 늘 생기처(生機處)가 있었다. (그래서) 곧장 두 손을 드리워(자비를 베풀어) 이 노파에게 묻고자 한 것이고, 노파도 이미 (그가) 조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 말해보라! 얼굴을 맞대고 어째서 조주의 죽순을 훔치러 간다고 하였던 것인가?

조주가 "홀연히 조주를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하자, 노파가 바로 손바닥으로 후려갈긴 것 역시 이 노장이 노파에게 솜씨를 부려보도록 하였던 것인데, 그(조주)가 바로 쉬었다. 자, 말해보라! 조주의 이것은 무슨 도리인가?

五祖先師拈云 "趙州休去 不知眾中作麼生商量. 老僧也要露箇消息 貴要眾人共知 婆子雖行正令 一生不了 趙州被打兩掌 咬斷牙關 可謂婆子去國一身輕似葉 趙州高名 千古重如山" 但凡拈古 須似這般手段 見透古人意 方可拈掇他. 若不如此 便泥裏洗土塊.

오조선사(五祖先師, 오조법연, 1024~1104)가 염(拈)했다. "조주의 휴거(趙州休去, 조주가 쉰 것)를 대중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상량(商量)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노승이 이 소식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아는 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노파가 비록 바른 법령(正令)을 행했어도 한평생 깨닫지 못했고, 조주가 (설령) 두 번 맞아도 아관(牙關, 입)을 다물었을 것이니, (이는) 가히 노파는 고향을 버리고 한 몸 가볍게 여기기를 마치 나뭇잎처럼 했고, 조주의 높은 명성(高名)은 천고에 그 두터움이 마치 산과 같다 할 것이다."

다만 염고(拈古, 고칙을 비평하는 것)는 모름지기 이런 솜씨를 가지고 고인의 뜻(古人意)을 꿰뚫어 봐야 염철(拈掇, 이야기를 꺼낼)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바로 진흙 속에서 흙덩이를 씻는 격이 될 것이다.

雪竇為他作得這般工夫 見得透前後 便云 "好掌 更與兩掌也無勘處" 且道 雪竇意在什麼處. 當時作得箇甚麼道理 勘得這婆子去 諸人照顧 切忌著掌.

설두는 그가 (바로) 이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전후를 꿰뚫어 보고 말하기를 "(손바닥으로) 잘 후려갈겼다. (하지만) 다시 두 번 갈겨도 역시 간파할 것이 없을 것이다"고 하였던 것이다. 자, 말해보라! 설두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당시에 무슨 도리를 얻었기에 이 노파를 감파한 것인가? 모두들 (자기 발밑을) 잘 살펴보되(照顧, 照顧脚下), 절대로 손바닥으로 후려갈기지는 말라!

*중국 송나라 이사중李師中이 바른 말을 하다가 귀양가는 당개(唐介, 송나라 강릉 사람, 1010~1069)를 송별할 때 지었던 시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홀로 바치는 충성을 스스로 자부하며 대중과 함께하지 않고/홀로 서서 감히 말하는 사람은 어려운 바이거늘,/고향을 버리고 한 몸 가볍게 여기기를 마치 나뭇잎처럼 하니/ 높은 명성은 천고에 산처럼 두터우리라.(孤忠自許衆不與 獨立敢言人所難 去國一身輕似葉 高名千古重似山)

함께 노닐던 영민하고 준수한 이들의 낯은 얼마나 두꺼운가./죽지 않고 간사하게 아첨하는 이들의 뼈는 이미 싸늘하네./하늘이 우리 황제를 위해 사직을 떠받들게 하거늘,/그대가 살아 돌아오지 않는 것을 허락하겠는가.(竝遊英俊顔何厚 未死奸諛骨已寒 天爲吾皇扶社稷 肯教吾子不生還)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㊳ 이해의 길 18

경전 탄생의 비밀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이 모두 석가모니 붓다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거기에는 붓다뿐만 아니라 인도와 중국, 한국 승려의 작품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붓다가 45년 동안 설한 가르침도 많은데, 여러 인물들의 저술도 포함되어 있어서 경전의 양이 방대한 것이다. 불교의 경전을 가리키는 명칭도 불경(佛經), 니까야(Nikaya), 아함경(阿含經), 삼장(三藏), 대장경(大藏經) 등 다양하다. 그렇다면 경전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며, 이름이 서로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붓다의 입멸 당시 교단의 2인자인 가섭 존자는 스승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그는 제자들과 함께 쿠시나가라로 향하던 도중 붓다의 열반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에 잠겼다. 그런데 한 비구는 태도가 많이 달랐다. 이제 더 이상 잔소리할 사람이 없어졌다며 오히려 좋아하는 것이었다. 가섭은 위기감을 느꼈다. 스승이 방금 돌아가셨어도 이런 모습인데, 시간이 흐르면 교단이 어떻게 될지 걱정되었던 것이다. 그는 교단을 지켜야겠다고 결심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붓다가 남긴 가르침과 계율을 온전히 전승하는 일이었다.

붓다의 장례식이 끝나고 3개월 후 마가다국의 왕사성 칠엽굴(七葉窟)에서 첫 번째 편집회의가 열렸다. 처음 모임이 열렸다 해서 이를 제 1결집(結集)이라 부른다.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모임이 이루어지는데, 순서대로 제 2결집, 제 3결집이라고 한다. 제 1결집에는 교단을 대표하는 5백 명의 비구들이 모였다. 의장은 당연히 가섭 존자가 맡았다. 평생 붓다의 곁을 지켰던 다문제일(多聞第一) 아난 존자가 앞으로 나와 붓다께서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설했는지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如是我聞).' 고 보고하였다. 그러면 5백 명이 내용을 확인한 다음 모두 함께 외웠다. 함께 외운다고 해서 이를 합송(合誦, Samghiti)이라 한다.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지계제일(持戒第一)이라 불린 우바리 존자가 앞으로 나와서 같은 방식으로 붓다가 제정한 계율을 함께 외웠다.

이처럼 제 1결집에서는 붓다의 말씀인 경(經)과 승가의 생활규범인 율(律)이 완성되었다. 불교의 모든 경전이 '여시아문(如是我聞)' 으로 시작하는 것도 붓다의 말씀을 편집하는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불교의 경전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 함께 외우면서 탄생하였다. 500명이 모여 붓다의 말씀을 합송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그저 '장엄하다.' 는 표현 외에는 다른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 이러한 합송의 전통은 수백 년 동안 이어지다가 문자로 된 경전이 만들어진다.

경전은 보통 경율론(經律論) 3장(藏)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제 1결집에서는 경장과 율장만 갖추어졌고 경의 주석서인 논장(論藏)은 부파불교에 이르러 확립되었다. 논(論)은 범어로 '아비달마(Abhidharma)' 라고 하는데, '법(法)에 대한 연구' 라는 의미다. 논장은 20여 개의 부파가 각자 자신들의 입장에 맞게 붓다의 말씀인 경을 해석한 것이다. 부파불교가 중생구제의 이념은 외면한 채 개인의 깨달음만 추구하는 소승불교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논장을 확립하여 삼장을 완성한 것은 중요한 공헌으로 인정해야 한다.

본래 3장은 범어로 '트리-피타카(tri-pitaka)' 라고 하는데, 3개의 바구니 혹은 창고라는 뜻이다. 붓다의 가르침과 계율, 주석서를 담고 있는 바구니, 그것들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라는 것이다. 대승불교에 이르러 〈금강경〉이나 〈화엄경〉 등을 비롯한 수많은 대승경전과 이에 대한 주석서들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보관하기에 3개의 창고가 너무 비좁아서 커다란 새 건물이 필요했다. 그것이 다름 아닌 대장경(大藏經)이다. 글자 그대로 근본경전, 대승경전뿐만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작품들도 보관할 수 있는 아주 큰(大) 창고(藏), 대형 도서관이 만들어진 셈이다.

그리고 빠알리어로 된 근본경전을 니까야(Nikaya)라고 부르며, 한역(漢譯)된 것은 아함경이라 한다. 그것들이 만들어진 배경과 명칭은 달라도 모두 붓다의 생생한 가르침이 담긴 소중한 유산이자 우리들 삶의 나침반이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